

# 국회의원 작년 후원금 477억...1위 강기정

###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상위 20’ 한나라 16명·민주 4명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305명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위는 모두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차지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전체 2위로 현재 거론되는 대선 예비주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0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3억2487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강 의원이 개인 모금액 1위에 올랐고 박근혜 전 대표(3억231만원·이하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3억1117만원), 서상기 의원(3억897만원), 주성영 의원(3억627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 모금액 상위 20위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4명으로 여당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도 한나라당이 1억71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노동당(1억6218만원), 민주당(1억4726만원), 자유선진당(1억3149만원), 미래희망연대(721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은 477억4636만원(지역구 435억5828만원, 비례대표 41억8807만원)으로 2009년 411억6719만원에 비해 16.0% 증가했지만 1인당 한도액이 3억 원(비례대표 제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이 1억7000여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총액은 총선거가 있어 1인당 모금 한도액이 3억 원이었던 2008년 634억429만원에 비해 무려 156억 5793만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후원금 모금액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지난해 ‘청목회 입법로비’ 사

건 여파로 연말 소액후원금이 끊긴 게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예상을 깨고 후원금 모금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해 10만원 이하 소액후원자가 97.5%가 될 정도로 소액 다수 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라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청목회 수사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너도나도 후원에 동참해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에서는 박지연(2억9995만원), 김재균(2억9642만원), 이용섭(2억9331만원), 김동철(2억1707만원) 의원 등이 민주당 내 후원금 순위 상위에 랭크됐다.

반면, 지난해 계속된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갑원 전 의원은 5089만 원만을 모으는데 그쳤고 박상현(8232만원), 김영진(8967만원), 김영록

■2010년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의원명	지역구	모금액
강기정	광주 북구갑	324,878,049
박지연	목포시	299,951,566
김재균	광주 북구 을	296,420,200
이용섭	광산구 을	293,312,446
김동철	광산구 갑	217,073,335
박주선	동구	193,772,000
이윤석	무안군 신안군	190,420,070
이낙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185,645,000
최인기	나주시 화순군	179,194,050
조영택	광주 서구갑	176,700,000
장병원	남구	169,720,000
우윤근	광양시	152,756,060
김성곤	여수시갑	126,065,000
김효석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121,490,000
유선호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106,151,000
주승용	여수시 을	93,515,798
김영록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93,300,000
김영진	광주 서구 을	89,677,550
김윤태	남구	82,928,000
박상현	고흥군 보성군	82,320,000
서갑원	순천시	50,890,6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330만원), 주승용(9352만원) 의원 등은 후원금 모금 실적이 좋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전 반대” 외치는 도쿄시민들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쿄 시민들이 10일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1만5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 日 후쿠시마 또 7.1 강진... 원전 전원 차단

11일 오후 5시16분께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하마도리(浜通り)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은 북위 36.9도, 동경 140.7도이고, 깊이는 10km로 추정된다.

이날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하마도리와 이바라키(茨城)현 남부 지방에서 진도 6, 이바라키 북부 지방에서 진도 5가 관측됐다.

도쿄 도심 고층 빌딩에서도 약 1분간 진동이 느껴졌다.

이날 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현 제1원자력발전소 1~3호기의 외부 전원이 차단돼 냉각수 주입이 중단됐다.

NHK는 “원전 운영인 도쿄전력이 소방 펌프를 이용해 원자로에 물을 주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현장 작업원에게 대피 명령

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이바라키현 연안에 1m 높이의 쓰나미가 물러올 수 있다며 경보를 내렸다. NHK는 “이바라키현과 후쿠시마현 연안에 이미 50cm~1m 높이의 쓰나미가 도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이후 오후 5시17분께에도 후쿠시마현 비슷한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연합뉴스

## 상임위 유관기관·대기업 후원 ‘논총’

### 구청장 기부금 관행 여전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총을 받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나 지방의원이 국회 의원에게 기부금을 내거나 고액 후원자들이 자신의 인적 정보를 숨기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2010년도 정당, 후원회 등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일부 의원들은 운수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허천, 백성은, 정진섭, 조원섭 의원 등은 운수회사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화재 의원은 건설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소속 민주당 이종걸, 조배숙 의원은 유명 증권사 전 사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이사철 의원은 은행 임원과 증권사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한 제약사 회장에,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의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위에서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과 정해걸 의원은 농업 관련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수산업 사자로부터 350만원을 받았다.

SK텔레콤 손길승 명예회장은 한나라당 여상규·최구식, 민주당 강봉균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을 후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대한항공 지창훈 사장에, 신지호 의원은 이현조 전 LG전자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씩을 받았고 윤상현 의원은 GS 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 동생인 허웅수 ㈜GS 사업지원팀장에게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특히,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민주당 박상현 의원은 고흥군의원 2명으로부터 850만원을 후원받았으며 한나라당은 이한구 의원은 대구 수성구 구의원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위원 부산 연제구청장과 연제구 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3명과 부산시의원 1명도 같은 지역의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임동욱기자 tuim@

### 눈길끄는 ‘이색 후원’

## 의원끼리 ‘품앗이’·아버지가... 딸이...

중앙선거위가 11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에는 ‘이색 후원’이 적지 않았다.

우선 의원끼리 서로 후원하는 ‘품앗이’ 관행은 이번에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성석 의원은 같은 당 동료 의원 9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후원받아 눈에 띄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서로에게 500만원씩 후원했으며 김중조 민주당 의원은 본인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기부자 중에는 경제인이나 종교인 등 유명인사도 있었다.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대표이사는 한나라당 나경원·이병석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기부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게 500만원,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에게 400만원을 기부했다.

가까운 친인척이 의원을 후원한 경우도 많았다. 4·27 재보선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최문순 전 의원은 친동생으로부터 320만원,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친동생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또 나경원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500만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아들로부터 320만원, 민주당 신건 의원은 아들과 딸로부터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받았다.

여러 명의 의원에게 후원한 사례도 70명이 넘었다.

이중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정진섭 이범관 김광림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후원한 사업가, 한나라당 김무성, 이혜훈, 한선교 의원과 민주당 우재창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후원한 대학교수도 있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방사능 사고 대책 논의 한·일 전문가 첫 대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사고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전문가 회의가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외교소식통이 11일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회의 첫날인 12일 방사능 오염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교환한 뒤 13일 회의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北 남극서 불법조업하다 적발 ‘망신’

최근 북한 선박들이 쌀을 싣고가다 침몰하거나 남극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등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1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항로봉호는 지난 6일 자정 무렵 쌀 1만3500t을 싣고 가다가 방글라데시 치타공 외항 부근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41명은 구출됐으나 쌀은 모두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쌀을 넘겨받은 항로봉호가 치타공 외항에 정박을 시도하려던 중 방글라데시 선박의 상업용 선박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문제의 쌀은 일단 방글라데시 정부의 의뢰에 따라 운송 중이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사용처는 확

인되지 않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사고 직후 방글라데시 당국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쌀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한다”며 “북한으로서는 책임지고 운송하던 쌀을 모두 ‘수장(水葬)’시켰다는 점에서 타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선박 2척이 지난 2월 조업이 금지된 남극 해양 보호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뉴질랜드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불법조업한 북한 어선 2척을 국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한 조업 진행 중이며 북한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사, 임병근, 허규

# 뮤지컬 **고화문 연가**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 **KBC**  
| 주 관 | KBC미디어그룹 · 영무엔터테인먼트  
| 후 원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DdM 뮤지컬 광화문연가**